[투데이갤러리]지지수의 ‘Father Still Life 11’

기사승인 [2018-01-29 08:55]

Father Still Life 11(111.8x162.2cm Oil on canvas 2017)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지지수 작가는 회화·드로잉·설치·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활용을 통해 자신과 타자, 혹은 외부 세계 사이에서 벌어졌던 심리적 갈등을 담아내고, 작품을 매개로 화해 가능성을 모색한다.

작가는 자신이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불행한 가족사와 현대 사회 구조, 미술사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시각화했다.

현실사회에서 권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상징되는 아버지, 그리고 그에 얽힌 자본주의 구조 등을 되돌아보고 내면적 화해와 치유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

작가는 덧없음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표현한 17세기 정물화에서 영감을 받은 배경 위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린 낙서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덧칠해 작품을 완성했다.

313아트프로젝트

전혜원 기자 summerrain@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